

## 기본간호학실습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윤리 경험

김지영  
상명대학교 간호학과

### Nursing students' experience of nursing ethics in fundamentals of nursing practicum

Jiyoung Kim  
Department of Nursing, Sangmyu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기본간호학실습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윤리 경험을 탐색하고자 질적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는 S대학교 기본간호학실습을 수강한 간호대학생 57명이었다. 자료는 2020년 12월 8일부터 12월 25일까지 성찰일지와 면담을 통해 수집되었다. 자료는 질적내용분석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상자에 대한 윤리 측면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간호 제공', '대상자의 사생활 존중', '정보보호', '개별화된 간호', '의무기록 관리에 대한 책임', '충분한 정보 제공', '취약한 대상자 보호', '안위 제공'이 도출되었다. 간호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측면에서는 '업무 표준 준수', '개인적 책임', '지속학습', '정직한 간호', '안전한 간호'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기본간호학실습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윤리 경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뿐 아니라, 향후 수업에서 간호윤리 함양을 위해 고려해야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본간호학실습에서 윤리적 교육, 간호기록 실습교육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was a qualitative study to explore th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with nursing ethics in the fundamentals of nursing practicum. Subjects enrolled were 57 nursing students who had studied the fundamentals of nursing practicum at S university. Data were collected from December 8 to December 25, 2020, using reflective journaling and interviews. Data were analyzed for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eight categories derived from the ethics for patients were 'providing care that respects human rights', 'respecting the privacy of patients', 'confidentiality (information security)', 'individualized nursing care', 'responsibility for maintaining and protecting medical records', 'providing sufficient information', 'protecting vulnerable patients', and 'comfort'. The five categories derived from the ethics as a nursing profession were 'compliance with nursing standards', 'personal responsibility (accountability)', 'continual learning', 'honesty in nursing', and 'safe nursing car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motes an understanding of the nursing students' experience of nursing ethics in the fundamentals of nursing practicum, and also draws implications to consider for fostering nursing ethics in future class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expand ethical education and nursing record practice education in the fundamentals of nursing practicum.

**Keywords** : Nursing Students, Fundamentals of Nursing, Nursing Ethics, Experience, Nursing Education

---

본 연구는 2021학년도 상명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였음.

\*Corresponding Author : Jiyoung Kim(Sangmyung Univ.)

email: jy1223kim@smu.ac.kr

Received July 14, 2022

Revised August 17, 2022

Accepted October 7, 2022

Published October 31, 2022

## 1. 서론

윤리강령(code of ethics)은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에 관한 법칙 또는 지침으로, 국제간호사회(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ICN])에서는 간호사와 인간, 간호사와 실무, 간호사와 직업, 간호사와 동료 영역에 대한 간호사의 윤리강령을 제정하였다[1]. 대한간호협회에서는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의 윤리의식 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간호사 윤리강령을 공포하였으며, 윤리강령의 기본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윤리지침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2].

또한,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간호대학생이 법과 윤리에 따라 간호를 수행하도록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설정하고, 졸업 시점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동 특성을 구체화하여 간호 관련 법, 간호사 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3]. 이에 간호교육에서는 법과 윤리와 관련된 학습성과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습실 교육 중 기본간호학실습에서는 간호 술기를 터득할 뿐 아니라, 예비간호사로서의 태도, 인성 및 역할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4].

간호대학생의 윤리의식을 조사한 결과, 존엄성을 가진 대상자에 대한 의식이 높았으며, 환자안전 수행자신감, 태도, 생각 및 전공만족도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5], 교육과정에서 윤리의식을 확고히 하고 인간존중과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를 갖추도록 교과목을 설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윤리의식은 전문직업관과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윤리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문직업관 정립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6]. 특히 간호윤리를 준수하면 간호의 질과 환자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7]. 이처럼 간호대학생의 간호윤리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간호윤리의식 함양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보고에도 불구하고, 간호윤리 경험을 탐색한 연구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국외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환자 개인정보보호 인식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으나[8], 간호윤리 중 비밀유지에 대한 내용만 포함되어 있어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간호윤리의 다면적인 측면에 대한 경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간호대학생 대상 윤리 연구는 주로 태아생명권, 임공임신 중절, 인공수정, 태아진단, 신생아생명권, 안락사, 장기 이식, 뇌사 등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것이었다[9,10]. 출산과 임종, 장기이식 등 생명윤리

도 중요하지만, 간호대상자의 건강 및 안녕을 증진하는 사명을 가진 예비간호사로서 직업적 윤리인 간호윤리를 이해하는 것 또한 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국외에서는 간호윤리교육의 내용적, 방법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위해 탐구중심 교수법[11], 탐기반학습법[12], 표준화환자와 사례분석을 결합한 교수법[13], 고충실도 환자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실습[14] 등 효과적인 다양한 교수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e-러닝 시스템을 활용한 교수법[15]에서는 접근성을 증대하며 간호윤리교육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다수의 국내 학부 간호교육자들이 미래 간호교육의 미션과 비전의 키워드로 전문직관, 리더십, 윤리를 제시하였으며, 직업윤리 함양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16]. 또한, 간호대학생의 시기별(임상실습 전, 후, 졸업 시점 등) 윤리 인식을 파악하여, 인식이 실무적용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6]. 그러나 국내 간호윤리 경험 연구로는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실습에서 간호전문직관 인식 경험을 탐색하여 윤리의식과 정서, 자기 역량에 대한 성찰 등의 경험을 도출하였으나[17], 임상실습 나가기 전 실무 중심의 교육이 시작되는 2학년 기본간호학실습에서 간호윤리 경험을 심층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현재 법과 윤리와 관련된 학습성과와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본간호학실습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윤리 경험을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도출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본간호학실습을 수강하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윤리에 대한 경험을 탐색하고자 한다. 간호대학생이 기본간호학실습에서 경험하는 간호윤리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간호윤리 인식을 증진시키는 기본간호학실습 수업 운영의 시사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근거자료가 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기본간호학실습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윤리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시도된 질적연구이다. 이를 위해 질적 자료에 대한 서술적 분석의 일련된 질적 내용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을 적용하였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C시 S대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간호대학생을 의도적 표본추출을 하였다. 선정기준은 기본간호학실습을 수강한 자료,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자,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본간호학실습은 간호술기를 습득하기 위해 ‘대상자를 총체적 인간으로 보고 기본 생리적 욕구 유지 및 충족을 위한 간호술기를 시행한다.’, ‘간호전문직 표준 및 법적 윤리적 기준을 이해하고 책임과 의무를 수행한다.’라는 프로그램 학습성과와 연계하고, 법과 윤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교과목 학습목표로 ‘간호실무의 표준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한다.’, ‘간호의 윤리적 기준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한다.’로 설정하였다. 수업에서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제시한 20개의 핵심기본간호술을 바탕으로 교육하고 평가하였다.

연구의 대상자는 총 57명이었다. 여학생 55명, 남학생 2명이었다.

### 2.3 자료수집방법 및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은 2020년 12월 8일부터 12월 25일까지 시행되었다. 기본간호학실습 수강 후 개인별 성찰일지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성찰일지는 ‘기본간호학실습을 통해 새롭게 배운 것들은 무엇이며, 향후 간호실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는가?’, ‘간호전문직의 법적 윤리적 기준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겠는가?’, ‘가장 의미 있었던 점과 아쉬웠던 점은?’의 질문으로 구성하였으며, 기술 내용을 제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경험과 생각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추가적인 자료수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중 일대일 면담을 하였는데, ‘기본간호학실습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윤리 경험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대전제로 하여, “그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등의 주요 질문, “추가로 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말해주세요.”의 마무리 질문을 통해 의미를 파악하였다. 경험에 대한 새로운 주제가 도출되지 않는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면담을 하였다. 면담과 동시에 녹음하였고, 참여자의 반응을 현장 노트에 기록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방법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았다. 또한, 연구 참여가 성적에 영향이 없음을 설명하고, 성적 산출 이후에 자료를 분석하였다.

### 2.4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은 서술형 자료수집과 면담이 끝난 이후 Elo와 Kyngäs[18]가 제시한 준비, 조직화, 보고단계에 따라

질적내용분석을 하였다. 1단계인 준비단계에서는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의미 있는 진술문을 확인하고, 의미 있는 단어를 도출하여 코드화하였다. 2단계인 조직화 단계에서는 확인된 의미 있는 진술문과 단어를 다시 읽으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통합하고, 일반적 주제를 형성하였다. 3단계인 보고단계에서는 도출된 일반적 주제에 적합한 하위범주, 범주, 주제에 명칭을 부여하고, 결과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자는 기본간호학실습 교육경험 5년 이상, 임상경력 7년 이상이며, 최근 3년간 3회 이상의 질적 연구를 수행하고 게재한 경험이 있다. 질적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민감성이 뛰어난 연구자가 참여자의 진술을 반복적으로 숙독하여 의미를 파악하였다. 자료분석 과정과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질적연구 경험이 풍부한 간호학과 교수에게 과정과 내용을 검토받으며 순환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 3.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기본간호학실습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윤리 경험을 한국간호사 윤리강령[2]에 근거하여 다각도로 탐색하기 위해 ‘간호대상자에 대한 윤리’, ‘간호 전문직으로서의 윤리’로 나누어 범주화하였다(Table 1).

Table 1. Themes and Categories of the Study

Themes	Categories
Ethics for pati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roviding care that respects human rights</li> <li>• Respecting the privacy of patients</li> <li>• Confidentiality (information security)</li> <li>• Individualized nursing care</li> <li>• Responsibility for maintaining and protecting medical records</li> <li>• Providing sufficient information</li> <li>• Protecting vulnerable patients</li> <li>• Comfort</li> </ul>
Ethics as a nursing profes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mpliance with nursing standards</li> <li>• Personal responsibility (accountability)</li> <li>• Continual learning</li> <li>• Honesty in nursing</li> <li>• Safe nursing care</li> </ul>

### 3.1 간호대상자에 대한 윤리

‘간호대상자에 대한 윤리’ 측면에서 간호윤리 경험은 ‘인권을 존중하는 간호 제공’, ‘대상자의 사생활 존중’, ‘정보보호’, ‘개별화된 간호’, ‘의무기록 관리에 대한 책임’, ‘충분한 정보 제공’, ‘취약한 대상자 보호’, ‘안위 제

공'이었다.

### 3.1.1 인권을 존중하는 간호 제공

간호대학생은 술기를 수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평등한 간호 제공을 이야기하였다. 간호사-대상자의 관계에서 대상자의 종교, 질병과 장애의 종류와 정도 등과 관계없이 차별 없는 평등한 간호를 제공해야 함을 경험하였다. 특히 문화, 종교적 배경을 사정하고, 간호대상자의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존중하여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모든 환자는 모두 아픈 사람들이다. 누구는 덜 아프고 누구는 더 아플 수 있겠지만 병원에 안 아픈 사람은 없기에 모두에게 평등한 간호를 제공해야 하고, 환자도 사람이니 원하는 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알맞은 상황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참여자 8).

자신의 가치관이나 종교 등과 같은 이유로 특정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간호 실무를 수행한다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항상 이 절차를 빼먹지 않고 항상 실무 전에 최우선으로 여기며 간호 실무를 수행할 것이다(참여자 12).

간호사는 간호대상자가 입원하게 되었을 때 간호대상자를 여러 차이를 불문하고 편안한 병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차별 없이 대해야만 한다(참여자 38).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의식 대상자에게 간호를 제공할 때에도 지금 제공할 간호에 대하여 설명을 먼저 하는 것이다. 아무리 의식이 없는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평등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먼저 말을 하고 간호를 수행해야 한다(참여자 47).

### 3.1.2 대상자의 사생활 존중

간호대학생은 대상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철저하게 사생활을 보호하고 술기를 할 수 있는 사적인 환경을 제공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신체 부위의 노출이 있는 단순도뇨, 유치도뇨, 영덩이주사, 판장을 할 때 간호사는 매일 해서 익숙하지만, 대상자는 처음이고 낯설어 당황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수업 시간에 배운 핵심 술기 속에서도 '커튼'을 쳐주는 행동을 자주 까먹곤 했는데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행위인 것 같다(참여자 1).

간호사 입장에서는 별 게 아닌 일들이 환자들에게는 민감한 문제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았다. 예를 들어, 커튼 쳐주기, 환의를 탈의할 때 홀이불 덮어주기 등 사소한 것들을 잘 잊을 염려가 있으나 환자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느낄 것이며, 이후에 감정적인 문제로 간호사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참여자 16).

실습 시험 때 환자의 복부를 그대로 노출하여 면도를 진행하던 도중에 커튼을 치는 실수를 했다. 환자가 민망한 부위를 타인에게 노출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 제도 설명 뒤 바로 커튼을 쳐야 했는데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못해 범한 실수이다(참여자 43).

### 3.1.3 정보보호

간호대학생은 수업에서 간호정보조사를 하였는데, 이때 수집된 자료의 개인정보의 비밀을 보장하고, 정보를 발설하거나 관계자 외의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입원간호 과정 중 간호사는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환자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건강정보, 과거 병력, 생활습관 등 환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게 되며, 이를 간호정보조사지에 기록하게 된다. 간호사는 간호 전문직의 법적 윤리적 기준 중 사생활 보호 및 비밀 유지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수집된 환자의 정보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공유하며, 그 이외의 목적으로는 함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한다(참여자 33).

정확한 간호 계획 수립을 위한 간호 사정 과정에서 대상자의 과거 병력이나 개인적인 사정처럼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를 알게 될 수도 있다.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와 비밀유지를 위해 더욱더 주의해야겠다(참여자 40).

### 3.1.4 개별화된 간호

간호대학생은 개인의 요구에 따라 개별화된 간호 제공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대상자의 특성과 상황의 차이를 이해하고 대상자에게 맞는 간호를 제공해야 하며, 개별적 요구를 존중하고 충족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연령과 성별에 따라 활력징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대상자마다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대상자의 개인적인 건강 영향요인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상자마다 적합한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참여자 34).

수술 후에 진통제를 환자 자신이 고통을 느낄 때 주입 할

수 있도록 자가통증조절장치를 통해서 통증을 조절할 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개별적인 요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참여자 37).

간호사는 간호대상자가 입원 시 간호정보조사지를 작성하고, 욕창 위험요인, 낙상 위험요인 등을 사정하는데 이를 통해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간호사는 이 결과를 이용하여 각 간호대상자에게 맞는 간호를 제공하여야만 한다(참여자 38).

### 3.1.5 의무기록 관리에 대한 책임

간호대학생은 술기를 수행한 이후 빠짐없이 수행한 모든 절차를 기록하였으며, 기록 및 보존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함을 인식하였다.

수행한 기록들을 작성하는 것들을 배웠다. 기록하며, 자료를 남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기도 알 수 있었다(참여자 22).

간호사는 간호 수행 직후 간호대상자에 대해 기록하고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나서도 기록지에 측정값을 기록하고 매 실습시간 후에도 환자의 상태와 양상, 측정결과 값이나 특이사항, 대상자에게 교육한 내용과 대상자의 반응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법을 습득했다(참여자 35).

### 3.1.6 충분한 정보 제공

간호대학생은 술기 수행과정 중 대상자에게 수행의 목적과 절차, 약물의 작용과 부작용 등을 설명하였다. 이론 수업에서는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으나, 실습을 통해 정확하고 충분하며 시기적절한 정보 제공으로 대상자가 스스로 간호 또는 의료에 대해 동의하고 치료를 선택하거나 거부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을 알게 되었다.

술기 연습 중에 자주 잊어버린 사항이 간호 목적과 부작용, 효과 설명하기였다. 오픈랩 시간에도 실제 처치에 대한 연습만 하고 관련 설명에 대해서는 넘기곤 했다. '내가 환자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내가 환자라면 설명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사람에게 간호를 받고 싶을지에 대해 생각했고 대답은 '그렇지 않다'였다. 대상자들은 낯선 병원이라는 환경과 여러 처치에 놓였을 때 불안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의료진에게 의존해야 한다. 간호사가 되어 불안할 수 있는 대상자들에게 처치에 대한 이해와 부작용 등에 대한 알 권리를 제공할 것이다(참여자 5).

모든 간호 실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전에 해야 하는 '대상자에게 ~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다.'는 수업을 듣기 전까지는 생각도 못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수업을 들으면서 이 절차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절대 빼먹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모든 환자는 자신이 받는 치료가 무엇인지 알 권리가 있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의료진들이 이러한 목적과 절차를 설명해주지 않고 이 절차가 필수라는 이유만으로 동의 없이 시행하게 된다면 환자들은 자신의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며 법적 윤리적 기준에도 어긋나진다(참여자 12).

본격적인 간호를 하기 전 항상 간호사 자신 소개와 대상자 확인 후 대상자에게 시행할 간호행위 목적 및 절차 또는 약물 투약일 경우 부작용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 전에 이론으로 공부할 때는 이런 내용을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기본간호학실습을 통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참여자 14).

기본간호학 및 실습 과목에서 처음 실습을 진행하였을 때, 나는 '대상자는 그저 의사와 간호사를 믿고 따르면 높은 확률로 자신의 신체적 건강이 호전될 것인데, 꼭 이렇게까지 대상자에게 설명하며 진행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이는 나 스스로 간호를 수행 받는 대상자의 입장에 대해 고려하지 못한 것이었다. 사실 이는 간호를 수행 받는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한 병원에서 간호사의 간호를 받는 개인으로서 자신의 신체에 어떠한 치료나 간호가 수행되는지 그 개인은 이에 대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참여자 30).

수술 전 간호 실습에서 Incentive spirometer를 대상자가 수술 후 사용하도록 할 때 간호사는 환자에게 이의 사용법을 교육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또 이로써 대상자의 건강이 어떻게 증진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한다. 이에 더해, 수술 후 간호의 JP drain 관리 부분에서 간호사는 배액 물을 확인하고 버리는 '간호행위'만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수술 부위의 분비물이 잘 배출되는지 확인하고, 배액 관을 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처럼 자신의 간호를 수행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 대상자에게 설명한다(참여자 31).

### 3.1.7 취약한 환경의 대상자 보호

간호대학생은 욕창과 낙상 고위험군, 고 연령군, 보행이 불편한 대상자군, 지남력이 떨어진 대상자 군, 면역력이 약한 군 등 취약한 환경에 있는 대상자를 파악하여 보호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상자나 보호자에

게 교육해야 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입원 관리 간호에서 욕창, 낙상에 대해서 사정하는 과정 중, 사정 결과 욕창과 낙상 고위험도로 측정된 대상자 같은 경우 취약한 대상자이므로 간호사는 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활동 부족, 인체의 여러 가지 기능의 효율성 감소가 일어나는 노인도 취약한 대상으로 분류하여 보호해야 한다(참여자 32).

라텍스 알레르기나 제모 크립에 피부 민감성 등을 나타내는 환자들, 혹은 면역력이 약하거나 화상 등의 이유로 세균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환자 등 취약한 대상자 보호를 적용해야 하며 항상 깨끗한 환경과 낙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는 간호를 수행하며 적용해야 함을 배울 수 있었다(참여자 34).

연령이나 상태 따라서 간호를 하는 방법을 다르게 하여 취약한 대상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혹여나 간호사가 없을 때를 대비하여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교육을 해야 한다(참여자 37).

### 3.1.8 안위 제공

간호대학생은 술기 수행과정에서 간호대상자에게 불편감 없이, 안위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대상자의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 심리적 건강을 위해 간호하고자 하였다.

많은 술기들을 학습하면서 대상자를 위한 간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환자에게 간호 수행을 할 때마다 간호 수행 후 불편한 점은 없는지 등 환자의 안위를 묻고, 환자의 의사를 묻는 등 모든 간호행위가 환자들을 위함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참여자 2).

술기의 순서를 익히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계속해서 ‘편안하신가요 불편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하면 묻는 과정에서 간호사는 단지 ‘행위’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안위와 편안을 계속해서 신경 쓰면서 간호를 시행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를 향후 간호사가 되어서도 환자의 안위를 우선으로 간호행위를 시행해야겠다고 생각했다(참여자 17).

간호행위를 하면서 프로토콜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혹시나 환자가 불편해한다면 하던 행위를 멈추고 환자의 상태를 살펴본다거나 환자의 반응, 편의 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절차가 조금 변경될 수 있음을 생각하고 간호를 제공한다(참여자 20).

점차 간호대상자가 신체적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갖게 되는 불안한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런 불안한 감정들조차 완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들이 상황이 호전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간호사의 덕목임을 배우게 되었다(참여자 31).

## 3.2 간호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간호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측면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윤리 경험은 ‘업무 표준 준수’, ‘개인적 책임’, ‘지속 학습’, ‘정직한 간호’, ‘안전한 간호’이었다.

### 3.2.1 업무 표준 준수

간호대학생은 간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간호업무 표준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수행근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업무 표준을 준수하며 간호를 수행해야 함을 느끼게 되었다.

학습한 간호 술기는 향후 임상에서 간호 실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 따라 간호 술기 항목과 순서에 맞게 간호사인 내가 대상자에게 적용해주어야 할 것이다. 기본간호학 수업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간호 술기를 각 항목의 프로토콜에 맞게 표준을 지키며 행할 것이다(참여자 21).

교수님께서 방법뿐 아닌 실행 이유에 대해서도 항상 설명해주셔서 향후 간호 실무에 적용할 때 사명감을 가지고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을 거 같아 뜻깊은 시간이었다(참여자 24).

실습하면서 간호 수행과정이 정말 체계적임을 알 수 있었다. 기초가 되는 손 씻기부터, 기록과 보고까지, 하나라도 빼먹으면 환자의 건강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절차를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참여자 49).

지나치게 혈압측정에 신경이 쏠린 나머지 활력징후 측정도구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만약 실제 임상에서 미리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환자의 활력징후를 측정하려 할 때,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환자를 간호하는 시간이 되려 낭비되고 부족해질 수 있다. 또한, 작동오류로 인해 나 자신이 당황하게 된다면 대상자에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할 수 있다. 이것은 전문가로서 간호사의 의무인 건강표준 준수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참여자 57).

### 3.2.2 개인적 책임

간호대학생은 간호사는 단순히 처방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의사결정 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자신이 수행한 간호에 대해 정당성을 설명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느꼈다.

기본간호학실습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간호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지 못하였고, 그저 주어진 처방에 따르며 환자의 안위와 건강 회복을 돕는 일이라 생각하였다. 하지만 주어진 20개의 실습을 직접 수행해보니 간호사의 자발적인 의사결정도 매우 중요하며 무엇보다 간호사는 비판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향후 간호 실무를 수행할 때 주어진 처방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객관적으로 관찰, 행동하는 간호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참여자 18).

간호사는 활력징후 측정의 책임을 지며 결과 분석, 의미 해석 및 중재를 결정해야 한다. 대상자의 상태와 특성에 따라 적절한 측정 기구를 선택하고 사용해야 한다. 평상시 활력징후 범위를 파악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측정결과를 비교하여 상태의 변화를 확인한다(참여자 52).

다양한 상황에 따라 여러 행위의 원리를 이해하고 각 행위를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판단하거나 적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환자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항상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시야를 가지고, 충분한 근거와 절차를 통한 적절한 수행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으며, 이처럼 내가 나의 모든 행위에 대해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위해서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참여자 56).

### 3.2.3 지속학습

간호대학생은 대상자에게 정확하고 적절한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간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교육받아야 함을 깨달았다. 또한, 대상자와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간호 술기를 배우면서 특히나 내가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언어, 비언어적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다(참여자 7).

환자들에게 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대상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완전히 이해하였는지 확인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한 것 같다. 그렇기 위해 누구보다 내가 질병과 간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며 보다 나은 간호 제공을 위해 나는 끊임없이 공부할 것이다(참여자 18).

향후 간호 실무에 적용할 때 시작에 앞서 핵심술기들을 왜 적용해야 하는지 스스로 생각하고 검토한 후 대상자에게 술기 과정의 필요성을 쉽게 설명해주면서 꼼꼼하게 배운 술기를 적용할 것이다(참여자 19).

치료를 하는 목적과 부작용, 위험성에 대해서도 자세하고 쉽게 알려줘야 하고 환자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각 술기에 맞는 부작용들과 위험성을 미리 숙지하고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간호사로서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한다(참여자 25).

단순히 간호가 상대방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환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환자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깊게 생각하여 소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참여자 37).

실수들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고 대상자의 건강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핵심 술기의 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간호의 무들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학습할 것이다(참여자 57).

### 3.2.4 정직한 간호

간호대학생은 간호 수행에 있어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공평한 간호, 정직한 간호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대상자가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간호사이기에 그 기대와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평한 간호를 제공할 줄 아는 간호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참여자 6).

간호전문직에게 정직은 정말 중요하다. 만약 활력징후를 올바르게 읽지 못한 방법으로 측정해서 측정값이 이상하면 다시 측정해야 할 것이다(참여자 39).

### 3.2.5 안전한 간호

간호대학생은 낙상 등의 건강 위협, 투약오류, 오염과 감염이 없는 등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며, 위협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무균법 술기 시험 이후 다른 술기 연습 시에도 오염이 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물품을 준비해야 하는지, 손 소독을 어느

때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조심하여 수행할 수 있었다. 종종 병원 내 오염으로 인한 사고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무균법이나 청결은 병원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안일해질 수가 있다고 한다. 실습수업을 통해서 중요성을 확실히 익혔기 때문에 실무에서 엄격한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참여자 5).

경구투약, 피하주사, 근육주사 등 투약원칙을 지키면서 투약오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참여자 9).

오염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행동들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다. 사람에게 적용하는 실무이다 보니 조금이라도 오염이 된다면 환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수업을 통해서 평균 상태를 유지하거나 오염을 시키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인지 알게 되었다(참여자 12).

항생제 반응 검사를 하기 위해 약물 믹스를 할 때 조금의 약물 오차도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실습이었다(참여자 24).

매 실습 시작과 중간, 마무리에서 손 소독제를 사용하거나 물로 손 위생을 하는 것을 통해 청결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지 체감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제모제를 사용하거나 배액관을 비울 때 위생장갑을 착용하는 것, 소독솜을 사용해 실습도구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는 것, '간헐적 위관영양'에서 영양백의 주입관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에서도 간호 과정에서 청결과 감염 관리는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참여자 53).

처음에는 아주 사소하다고 생각한 행동들이 위생 측면에서 보았을 때 면역력이 약한 환자에게는 매우 위험한 행동과 생각이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고 그 이후로는 최대한 감염과 오염을 막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것 같다(참여자 56).

#### 4. 논의

본 연구는 기본간호학실습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윤리 경험을 '간호대상자에 대한 윤리', '간호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번째로, '간호대상자에 대한 윤리' 측면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간호 제공'이 도출되었다. 간호대학생은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간호를 제공해야 하며, 종교적 관

점과 신앙 행위를 존중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간호사 윤리강령에 입각한 윤리의식 도구를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 '나는 환자의 신앙을 존중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5]. 또한, 시뮬레이션 실습을 통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인식 경험 연구[17]에서도 간호대학생은 대상자는 생명을 가진 인간이기에 차별하지 않고 평등한 간호를 제공하는 윤리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과 일치하였다. 이란의 간호사 대상 연구[19]에서 대상자의 권리 존중은 이직 의도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간호사는 간호의 근본이념인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존중하고 옹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기본간호학실습을 통해 임상현장에서 대상자의 권리 존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본정신인 동등하고 평등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함을 알 수 있었다.

'간호대상자에 대한 윤리' 측면에서 '대상자의 사생활 존중'이 도출되었다. 선행연구[8]에서는 직접간호업무, 연계업무, 환자정보관리, 의사소통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사생활 보호와 관련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이 기본간호학실습을 통해 간호 처치 및 개인위생 시 민감한 부분들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사생활이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호대상자에 대한 윤리' 측면에서 '정보보호'가 도출되었다. 간호대학생은 대상자의 비밀을 유지하며, 간호에 필요한 정보만을 공유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못한 2학년 간호대학생 대상 연구[8]에서 개인정보보호 인식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1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간호대학생에서도 윤리강령의 하부 영역 중 '사생활 보호 및 비밀유지'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6]. 이란의 간호대학생도 '대상자 비밀 유지'와 '사생활 보호'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였다[20]. 대상자의 개인정보는 절대적으로 비밀유지, 보호되어야 하므로, 기본간호학실습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인식한 것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시 관찰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집담회에서 사례발표 시 간호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간호대상자에 대한 윤리' 측면에서 '개별화된 간호'가 도출되었다. 간호대학생은 대상자의 개인적 요구를 존중하며 간호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투약간호를 중심으로

한 간호대학생의 기본간호학실습 경험 연구[21]에서도 간호에서 무엇보다 환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한 것과 유사하였다.

‘간호대상자에 대한 윤리’ 측면에서 ‘의무기록 관리에 대한 책임’이 도출되었다. 간호대학생은 간호 수행 직후 사실에 근거하여 진실하고 성실하게 의무기록을 작성하고 책임을 다해야 함을 인식하였다. 실습을 마친 졸업반 간호대학생의 과반수인 60%가 간호기록 교육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경험이 있는 학생 대다수는 1, 2학년에 임상실습 나가기 전에 교육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22].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법적인 관점에서 간호기록 작성에 대한 지식수준은 평균 100점 만점에 44.15점(정답율 77.3%)로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22]. 따라서 간호기록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임상실습 나가기 전인 2학년 기본간호학실습에서 실무 중심의 체계적인 간호기록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간호대상자에 대한 윤리’ 측면에서 ‘충분한 정보 제공’에 대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술형 자료에서 “간호사는 환자에게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진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진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의료진에 대한 신뢰와 존중의 의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참여자 43)”라고 나타났다. 이는 알권리가 자기결정권,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의미뿐 아니라, 간호사와 대상자 간의 상호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간호대상자에 대한 윤리’ 측면에서 ‘취약한 대상자 보호’에 대해서 생각하였다. 간호대학생은 연령이나 상태에 따라 취약한 간호대상자를 파악하여 보호하고, 대상자와 보호자 교육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현장에서 다양한 취약층을 만나게 되므로, 기본간호학실습을 통해 취약한 대상자를 사정하고, 민감하게 대처 및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술형 자료에서 “낙상 고위험군 환자 같은 경우, 낙상 주의 표지판을 부착하거나 침대 난간을 올려놓을 것을 교육하고, 바닥에 물기를 닦는 행위를 통해 환자의 건강 환경 구현을 위해 주의해야 한다(참여자 35)”라고 나타났는데, 이는 취약한 대상자 보호를 위해 건강한 환경 구현이 필요하다는 점을 연관 지어 구체적인 간호 수행을 생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간호대상자에 대한 윤리’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안위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간호대학생은 대상자의 불안감을 이해하고, 안위를 우선으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국외 연구[23]에서는 간호대학생이 대상자의 사회 심리

적 요구를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 대상자와 마네킹은 다르지만, 기본간호학실습에서 대상자의 정신적, 사회 심리적 요구를 파악하고 안위를 제공하는 간호를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간호대상자에 대한 윤리’ 측면을 분류하여 결과를 살펴보았다. 간호대학생은 “간호 술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간호사가 편한 대로 술기를 진행하는 때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간호 술기 연습을 하면서 술기가 다 끝났음에도 환자에게 편한 체위를 취해주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때도 있었고, 관장이나 도뇨 같은 환자의 사적인 신체 부위가 노출되는 술기임에도 커튼을 치지 않는 때도 있었고, 환자에게 무슨 술기를 시행하는지 설명하지 않았을 때도 있었다.”라고 하였다. 이는 대상자 간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윤리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생활 존중, 충분한 정보 제공 등 여러 간호윤리가 관련이 있으며, 이를 모두 준수해야 함을 시사한다. 교수자는 기본간호학실습에서 학습자에게 수행항목을 절차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기본단계를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간호윤리가 통합적으로 나타남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이 법적 윤리적 기준에 따라 올바른 간호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훈련과 윤리적 성찰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 ‘간호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측면에서 ‘업무 표준 준수’가 도출되었다. 간호대학생 간호윤리 교육 프로그램 고찰 연구[24]에서는 간호윤리 교육 대부분이 교과목 수업에서 이루어졌으며, 전통식 강의를 포함하여 사례에 기반한 토론, 토의, 액션 러닝, 온라인 학습, 문제 기반학습 등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기본간호학실습은 간호윤리 교과목은 아니지만, 실제 수행이 가능한 수업에서 간호윤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이 수행근거를 이해하고 간호업무 표준을 준수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간호윤리 교과목에서 의사결정과정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윤리의식, 도덕적 판단력과 민감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본간호학실습에서의 경험을 통해 임상현장에 적용 가능한 간호윤리를 경험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하였다.

‘간호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측면에서 ‘개인적 책임’이 도출되었다. 간호대학생은 전문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간호를 수행하고, 책임감을 느껴야 함을 경험하였다. Lim 등[5]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윤리의식 중 가장 낮게 나타난 문항은 ‘나는 환자에 투여되는 약품 종류,

용량을 전적으로 의사 처방에 따른다.’이었다. 간호학 논문에 나타난 ‘전문간호역량’ 분석 연구[25]에서 사회적 책무성 역량은 간호전문가로서 판단과 행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국외에서는 임상현장에서 윤리적이고 근거기반 의사결정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학생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실습을 활용하고 있었다[26]. 따라서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전문지식과 비판적 사고, 세심한 주의력과 높은 윤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기본간호학실습뿐 아니라 다양한 교과목에서 교육해야 하겠다.

‘간호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측면에서 ‘지속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간호대학생은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효과적인 의사소통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느꼈다. 간호사는 업무 범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문가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25]. 또한, 간호대학생은 의사소통기술이 간호대상자와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는데, 기본간호학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력은 공감역량, 대인관계 이해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 따라서 기본간호학실습에서 수행항목 절차에 따라 설명과 교육 위주의 의사소통기술을 습득한 것을 바탕으로, 이후 임상현장에서 대상자와 공감적, 치료적 의사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점적인 교육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간호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측면에서 ‘정직한 간호’에 대해서 생각하였다. 간호대학생은 술기를 수행하면서 정직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이야기하며, 공평하고 정직한 간호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Lee[17]의 연구에서도 시뮬레이션 실습에서 간호대학생은 간호를 제공하는 절차와 방식에서 정직을 지키고 양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간호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안전한 간호’가 중요하다고 깨달았다. 간호대학생은 안전한 투약, 감염이 없도록 무균술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윤리의식은 환자안전 수행자신감, 태도 및 생각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 기본간호학실습에서는 간호윤리와 환자안전을 결합한 실제적인 간호 수행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의 간호윤리와 환자안전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간호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측면에서 간호대학생은 간호사로서 직업적 윤리를 갖추고자 업무 표

준을 준수하고, 책무성과 더불어 전문적인 자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정직한 간호, 안전한 간호와 같은 자신의 윤리적 기준을 설정하고 간호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일본의 연구[28]에서는 임상실습 시 간호윤리교육을 위해 선행학습과 관련 교과목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또 다른 국외 연구[14]에서는 시뮬레이션 실습과 간호윤리교육 통합을 고찰한 결과,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실천 지식과 기술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간호윤리교육의 질적 향상과 발전, 학생의 학습요구도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론과 기본간호학실습, 시뮬레이션 실습, 임상실습을 통합 또는 연계하여 지식과 태도가 수행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윤리 경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뿐 아니라 향후 수업에서 방향성을 제안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추후 기본간호학실습 수업에서는 간호 지식이나 기술의 증진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인권과 사생활 존중, 정보보호, 개별화된 간호 등의 간호윤리를 반영하고 접목을 고려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기본간호학실습에서 체계적인 간호기록교육을 확대하여 임상현장에서 의무기록 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먼저 일개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윤리 경험의 내용을 분석하였으므로 결과를 해석하는데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에 기반하여 다각도로 간호대학생의 간호윤리 경험을 탐색하고자 하였으나, 기본간호학실습에서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관계와 협력을 경험하는데 한계가 있어 윤리, 대외협력과 같은 협력자에 대한 윤리는 탐색할 수 없었다는 점이 제한점이다.

## 5. 결론

본 연구는 기본간호학실습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윤리 경험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대상자에 대한 윤리 측면에서는 ‘인권을 존중하는 간호 제공’, ‘대상자의 사생활 존중’, ‘정보보호’, ‘개별화된 간호’, ‘의무기록 관리에 대한 책임’, ‘충분한 정보 제공’, ‘취약한 대상자 보호’, ‘안위 제공’이 도출되었다. 간호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측면에서는 ‘업무 표준 준수’, ‘개인적 책임’, ‘지속학습’, ‘정직한 간호’, ‘안전한 간호’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상자, 간

호 전문직으로서의 윤리뿐 아니라, 협력자에 대한 윤리 경험을 탐색하는 후속 질적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와 더불어 간호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간호윤리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는 양적연구를 제안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이 간호윤리를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도록 기본간호학 실습에서 윤리교육, 간호기록 실습교육 등을 확대하고, 다양한 이론, 실습 교과목과 연계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단계적, 지속적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 References

- [1]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The ICN code of ethics for nurses, 2012 [cited 2022 July 13], Available From: [https://www.icn.ch/sites/default/files/inline-files/2012\\_ICN\\_Codeofethicsfornurses\\_%20eng.pdf](https://www.icn.ch/sites/default/files/inline-files/2012_ICN_Codeofethicsfornurses_%20eng.pdf) (accessed Jul. 13, 2022)
- [2] Korean Nurses Association. Ethics, 2013 [cited 2022 July 13], Available From: [https://www.koreanurse.or.kr/about\\_KNA/ethics.php](https://www.koreanurse.or.kr/about_KNA/ethics.php) (accessed Feb. 25, 2022)
- [3]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Nursing core competencies, 2022 [cited 2022 July 13], Available From: <http://www.kabone.or.kr/reference/refRoom.do> (accessed Feb. 25, 2022)
- [4] H. J. An, H. J. Park, "An ethnography on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clas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25, No.1, pp.33-45, 2018. DOI: <https://doi.org/10.7739/ikafn.2018.25.1.33>
- [5] K. C. Lim, M. Park, G. Shin, "Influences of sense of ethics and attitude toward patient safety in the confidence in patient safe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Vol.24, No.2, pp.140-149, 2017. DOI: <https://doi.org/10.5953/JMJH.2017.24.2.140>
- [6] S. W. Kang, E. J. Choi, "Awareness towards code of ethics for Korean nurses and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7, No.2, pp.1101-1114, 2015.
- [7] H. Jafari, A. Khatony, A. Abdi, F. Jafari, "Nursing and midwifery students' attitudes towards principles of medical ethics in Kermanshah, Iran", *BMC Medical Ethics*, Vol.20, No.1, pp.1-6, 2019. DOI: <https://doi.org/10.1186/s12910-019-0364-z>
- [8] H. J. Lee, "Convergence study on perception on patient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7, No.5, pp.59-65, 2017. DOI: <https://doi.org/10.22156/CS4SMB.2017.7.5.059>
- [9] G. S. Jeong, "The effect of biomedical ethics education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freshma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2, No.3, pp.376-386, 2016. DOI: <http://dx.doi.org/10.5977/ikasne.2016.22.3.376>
- [10] M. S. Kim, M. K. Jeon, "Influence of perception of patient rights and ethical values 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24, No.1, pp.1-9, 2018. DOI: <https://doi.org/10.14370/jewnr.2018.24.1.1>
- [11] F. Zhang, L. Zhao, Y. Zeng, K. Xu, X. Wen, "A comparison of inquiry-oriented teaching and lecture-based approach in nursing ethics education", *Nurse Education Today*, Vol.79, pp.86-91, 2019. DOI: <https://doi.org/10.1016/j.nedt.2019.05.006>
- [12] L. Ozgonul, M. K. Alimoglu, "Comparison of lecture and team-based learning in medical ethics education", *Nursing Ethics*, Vol.26, No.3, pp.903-913, 2019. DOI: <https://doi.org/10.1177/0969733017731916>
- [13] G. E. Kucukkepce, L. Dinc, M. Elcin, "Effects of using standardized patients on nursing students' moral skills", *Nursing Ethics*, Vol.27, No.7, pp.1587-1602, 2020. DOI: <https://doi.org/10.1177/0969733020935954>
- [14] M. Sedgwick, S. Yanicki, N. Harder, D. Scott, "A scoping review of the integration of ethics education in undergraduate nursing high-fidelity human simulation-based learning", *Journal of Clinical Nursing*, Vol.30, No.5-6, pp.605-614, 2021. DOI: <https://doi.org/10.1111/jocn.15552>
- [15] S. Y. Chao, Y. C. Chang, S. C. Yang, M. J. Clark,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effects of an integrated web-based teaching model in a nursing ethics course", *Nurse Education Today*, Vol.55, pp.31-37, 2017. DOI: <https://doi.org/10.1016/j.nedt.2017.04.011>
- [16] S. J. Lee, Y. M. Kim, E. G. Oh, "Korean undergraduate nursing education: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al strategies as perceived by nursing educators and nurse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33, No.4, pp.360-375, 2021. DOI: <https://doi.org/10.7475/kjan.2021.33.4.360>
- [17] E. Lee, "Experi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after simulation-based education: focused on finding from a focus group interview",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1, No.2, pp.268-279, 2021. DOI: <https://doi.org/10.5762/KAIS.2020.21.2.268>
- [18] S. Elo, H. Kyngäs, "Th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proces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62, No.1, pp.107-115, 2008.
- [19] M. Hatamizadeh, M. Hosseini, C., Bernstein, H.

Ranjbar, "Health care reform in Iran: implications for nurses' moral distress, patient rights,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Journal of Nursing Management*, Vol.27, No.2, pp.396-403, 2019.

DOI: <https://doi.org/10.1111/jonm.12699>

- [20] B. Poorchangizi, F. Borhani, A. Abbaszadeh, M. Mirzaee, J. Farokhzadian, "The importance of professional values from nursing students' perspective. *BMC Nursing*, Vol.18, No.1, pp.1-7, 2019. DOI: <https://doi.org/10.1186/s12912-019-0351-1>
- [21] H. J. Jung, "Experience of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focusing on medication nursing",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9, No.7, pp.559-569, 2019. DOI: <http://dx.doi.org/10.35873/ajmahs.2019.9.7.050>
- [22] E. Y. Jung, S. H. Yang, "A study on the knowledge level of nursing records among nursing students-focusing on legal aspec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23, No.2, pp.150-159, 2017. DOI: <https://doi.org/10.14370/jewnr.2017.23.2.150>
- [23] S. Mersin, M., Demiralp, E. Öksüz, "Addressing the psychosocial needs of patients: challenges for nursing students", *Perspectives in Psychiatric Care*, Vol.55, No.2, pp.269-276, 2019. DOI: <https://doi.org/10.1111/ppc.12365>
- [24] D. Han, "An integrative review of nursing ethics education programs f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6, No.1, pp.55-62, 2020. DOI: <http://dx.doi.org/10.17703/JCCT.2020.6.1.55>
- [25] J. S. Kang, E. M. Kim, I. Y. Lee, M. R. Lee. "The "professional nursing competency" in the nursing thesis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14, pp.257-279, 2020.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20.20.14.257>
- [26] A. Opsahl, T. Nelson, J. Madeira, A. H. Wonder, "Evidence-based, ethical decision-making: using simulation to teach the application of evidence and ethics in practice", *Worldviews on Evidence-Based Nursing*, Vol.17, No.6, pp.412-417, 2020. DOI: <https://doi.org/10.1111/wvn.12465>
- [27] K. H. Baek, "A study on convergent empathy of nursing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fundamental nursing skills cours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8, No.9, pp.211-219, 2020. DOI: <https://doi.org/10.14400/JDC.2020.18.9.211>
- [28] M. Tsuruwaka, "Consulted ethical problems of clinical nursing practice: perspective of faculty members in Japan", *BMC Nursing*, Vol.16, No.1, pp.1-9, 2017. DOI: <https://doi.org/10.1186/s12912-017-0217-3>

김 지 영(Jiyoung Kim)

[정회원]



- 200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학사)
- 2012년 9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노인전문간호 (간호학 석사)
- 2016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성인간호 (간호학박사)
- 2020년 3월 ~ 현재 : 상명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기본 간호, 성인 건강, 노인 건강, 여성 건강, 간호 교육